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전국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나,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3:1)

대한예수교 감리교 총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죄를 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1-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중요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유대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는 구원을 얻으려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가르치 진리에 순종하려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침의(稱義)를 적용 시키고자 이러한 문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를 위하여 아무 것도 더할 것이 없음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되는 것이 결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기록하게 될 수 없음을 변증하여 설명한 뒤에,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그대로 실행하라고 진술합니다. 비록 할례에 대한 논쟁 자체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동요시키지는 않지만, 하소년의 은혜를 얻기 위한 일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율법의 문제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향을 줍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굳게 설 것을 중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자유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2:3). 율법(할례)은 은혜(그리스도)는 혼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義)를 성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는가 하는 것도 관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므로써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일들은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존재가 되거나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만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신 죄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지도 없지도 그것에 대하여 다짐할 것 같은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의 결박을 깨뜨리고 ‘사랑의 쓰는 것’(고전 15:56)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존엄성에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어겼을 때,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갈 4:5)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에 굳게 서십시오.

율법에서 떠남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예수께서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종교적인 의식에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죄를 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3:4절). 율법은 수많은 계명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율법을 준수하려는 사람은 거기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으려는 것은 칭의에 이르는 유일한 기호인 은혜의 길을 떠나 버리며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결코 구원을 발견하실 수 없습니다.

예식의 가치에서 떠남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의식에 참여합니다. 이 종교적 예식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식들은 결코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되 너희가 내 이름을 두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바울은 더욱 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율법에 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십시오. 믿음은 여러분에게 의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5:6절). 정말로 의(義)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신자들의 소망은 그들을 의롭게 만듭니다. 이 세상과 그것이 주는 것들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있는 오직 한 소망을 말하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을 좇아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결코 의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시는 유일한 은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가 바라리라”(롬 8:24). “그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이르시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절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이 온갖 속박이라”(골 3:5).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관심이야말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의의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Sermon of pastor Kim

Stand Firm in Christ



It was for freedom that Christ set us free; therefore keep standing firm and do not be subject again to a yoke of slavery. Behold I, Paul, say to you that if you receive circumcision, Christ will be of no benefit to you. And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who receives circumcision, that he is under obligation to keep the whole Law.

You have been severed from Christ, you who are seeking to be justified by law; you have fallen from grace. For we through the Spirit, by faith, are waiting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 (Galatians 5:1-6)

In today's Bible verses, Paul is speaking directly to the swaying churches of Galatia. Certain Jewish Christians (the Judaizers) were teaching that merit-salvation through obedience to the Law of Moses was necessary. Their persuasions concerning circumcision were hindering the Christians of Galatia in obeying the truth. As such, Paul jumped in to apply justification by faith in relation to Christian liberty. After asserting the rightness of the gospel, and defending and explaining justification by faith plus nothing, and of sanctification by the Holy Spirit, not the Mosaic Law, he here puts into practice the necessity of standing firm in Christ. Although arguments concerning circumcision do not sway most Christians today, other factors related to earning God's grace influence them. Paul's message urges all believers to stand firm in freedom, from the Law, and by faith—in Christ alone!

Stand firm in the freedom Christ provides. "It was for freedom that Christ set us free; therefore keep standing firm and do not be subject again to a yoke of slavery. Behold I, Paul, say to you that if you receive circumcision, Christ will be of no benefit to you"(vv. 1&2). Law (circumcision) and grace (Christ) simply do not mix. Jesus Chris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He gives us freedom. Human power is limited. We cannot make ourselves righteous, no matter how hard we try. The good news is that Jesus has the power to make us righteous, and from there give us freedom. It's useless trying to make yourself good. It's a waste of time trying to make yourself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You cannot satisfy God by being good and doing good things. You cannot secure God's favor by trying to keep the law.

The beauty and wonder of God's grace is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nymore about whether or not you have the ability or strength to keep God's commands. My friend, Jesus broke the bonds of sin and removed the sting of death. You are free from them in Him. Jesus already accomplished everything. He came to this earth as a sinless Man, kept all the laws, and did everything righteous in front of God. In Jesus, God was well pleased. But as for you, you are a sinner. The Bible tells us that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God's glory. You just can't make it on your own! When you break the law, Jesus pays the penalty. Romans 8:2&3 tells us,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of death.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weak as it was through the flesh, God di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as an offering for sin,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Jesus died, "so that He might redeem those who were under the Law, that we might receive the adoption as sons"(Gal. 4:5). Therefore, stand firm in the freedom Christ gives to believers.

Stand firm from the law. Jesus is the highest value. When you get hung-up on ritualistic forms, the value of Jesus goes down. Paul told the Christians of Galatia, "And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who

receives circumcision, that he is under obligation to keep the whole Law. You have been severed from Christ, you who are seeking to be justified by law; you have fallen from grace"(vv. 3&4). Because the law is a unit, obedience to it cannot be selective. If one chooses this route, then Jesus is nothing. To use the impossible ground of justification by law is to leave, abandon, and fall from the way of grace as the only basis for justification. Christ is what is important. You cannot find salvation in the law.

Christian members participate in many formal rituals, like baptism, communion, and marriage. There is value in these religious ceremonies, but they do not make you righteous.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Mt. 7:22&23). Paul is even more direct, "For as many as are of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abide by all thing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perform them'"(Gal. 3:10). Christ give us freedom from the law. Therefore, stand firm in Christ, not the law.

Stand firm by faith. Faith gives you the hope of righteousness. "For we through the Spirit, by faith, are waiting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vv. 5&6). Righteousness really comes from your faith. The hope of believers makes them righteous. Hope in this world and the things it offers is nothing. It is a false hope, a deadly hope. Only hope in Jesus Christ brings forth life. It is a real and eternal hope. The Bible only tells us of one worthwhile hope, and that hope is in Jesus Christ. You cannot be righteous without faith in Christ.

We have to focus on Jesus Christ with our faith. It is our privilege of redemption. It will stay eternally with God. That's why through the Holy Spirit your faith can be righteous, not ritualistic. There is nothing of this earth that can make you perfect. The only hope of God's presence in your life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at makes you righteous! "For in hope we have been saved, but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o hopes for what he already sees?"(Rom. 8:24).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 Therefore consider the members of your earthly body as dead to im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amounts to idolatry"(Col. 3:4&5). People naturally concern themselves with other things, but those who stand firm in Christ will concern themselves only with Him. It is the only way to be righteous. It gives you the hope of righteousness. Therefore, stand firm in Christ by your faith. 

고난을 통한 순종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4-10)

정현민 목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인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사역이었습니다(6-7절). 구약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으로 직위를 얻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음에도 자신의 방식과 계획대로 사역을 수행한다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민 16장을 보면 고라와 단이 즉각 250명과 함께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셨거나 그들을 높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민 16:3).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을 취하고 그들도 자신의 장막에서 불을 피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게 하시어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음부에 빠져 여호와의 총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막 10:33-34).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2-45)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3-4)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5절).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 2: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5절). 이 말씀은 초대 교회 이후로 메시야적 메시지로 이해되어온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 되신 것은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죄 문제를 사하신 것도 스스로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6절).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 보던 수신자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자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은 인물이었으며,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저자가 멜기세덱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

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6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갈라리...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하 이기느니라...다름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롬 8:35,37,39).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편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넘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7-10절은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까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7절). 이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죽음의 공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기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았으며 나서로가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주님을 죽일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주님에게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갯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고난의 장소에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 주저앉고 지칠 때에 갯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심히 고만하여 죽을 정도로 마음에 슬픔이 있었을 때에(마 26:37-38),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히 12:2)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어 주저앉고 지칠 때에 그 마음이 고만하여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갯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부었으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아멘! 

◆ 다음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0교구 2지역	김경환	우즈베키스탄	5월 13일(화)~5월 24일(토)
2교구 1지역	김영달	몰도바	5월 14일(수)~5월 24일(토)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2교구 1지역	강태영	인도	5월 1일(목)~5월 12일(월)
12교구 3지역	함철주	인도	5월 1일(목)~5월 12일(월)
2교구 5지역	이상해	네팔	5월 5일(월)~5월 17일(토)
1교구 8지역	이부성	몰도바	5월 7일(수)~5월 17일(토)
4교구 3지역	신광철	스리랑카	5월 7일(수)~5월 17일(토)
14교구 4지역	김동욱	몽골	5월 9일(금)~5월 19일(월)

◆ 이번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7교구 13지역	진학래	몽골	4월 28일(월)~5월 9일(금)
11교구 2지역	장철환	인도	4월 28일(월)~5월 8일(목)
12교구 5지역	정원근	카자흐스탄	4월 29일(화)~5월 9일(금)
7교구 6지역	송두섭	방글라데시	5월 1일(목)~5월 8일(목)
6교구 1지역	이실호	인도	5월 1일(목)~5월 9일(금)
7교구 7지역	이인광	불가리아	5월 1일(목)~5월 9일(금)

▶ 젊은, 우리는 복음의 사도 ③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의 방향이 선교에 맞춰지며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보고, 나도 한 번은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스리랑카에, 이어서 터키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알렉산드리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막상 선교지에 가 보니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 그들은 우리 대원들을 무척 반가워했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이해했는 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시간들이 그들이 복음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 교회 방침대로 더 많은 성도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길 바란다.



천은주 (천1부)

(선언주 기자)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④

스리랑카 비둘라(Badulla), 라트나푸라(Ratnapura)(5월 7일~5월 17일)

작년 8월에 스리랑카의 누아엘라와와 바둘라(Badulla)를 다녀왔습니다. 바둘라는 농촌이어서 잡자리의 불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 중 하나는 그곳에서 만났던 한 무슬림 가정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우리를 초대하여 한대해서 우리는 무척 당황하고 한 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 복음을 순순히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는 약속도 지켰고, 출근하던 그 집 아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성당이라도 통역하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올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다시 가서 그 가정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 가정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지난 1월부터 선교팀을 구성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힘들어 했는데,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모두들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철
4교구 3지역장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스리랑카에서 하늘의 비명이 선포될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참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3.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개인, 가정, 구역, 지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이 진보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⑤

스리랑카의 마할라와 갈몰라로 7월 28일(화)에서 8월 8일(금)까지 10박 11일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작년 12월에 스리랑카 타밀족이 많이 사는 북부 지방에 푸탈림과 이누라다푸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처음 가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후루부 다녀왔는데 올해에는 팀장으로 자리바꿈을 하니 부담감이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스리랑카 푸탈림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 중 성당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술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노는 날이며 술 먹는 날이라고 주저 없이 답하였습니다. 불쌍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불교신자들은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고 조상들이 믿었으니 따라 믿는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고자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한 교구의 같은 지역원들이기도록 되어 있어 팀 구성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막상 지원자는 여섯 명의 여성들뿐 이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부에서 2명의 청년들을 지원 받아 팀을 구성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2. 모든 대원들이 스리랑카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3. 팀원들이 은혜에 감당하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4.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정원환
2교구 8지역장

(영점성 기자)

가장 큰 축복

최 철 희 (대학부 학생회 회장)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께서는 마흔이 넘어서야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이 넘은 지금 구역모임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일주일용 보내신다. 그 가운데 나에게 항상하시는 말씀이 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란다.”

대학부에서 나의 신앙은 많이 변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대학부에서

서 성경공부를 하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다. 특히 로마서를 처음 공부할 때는 정말 말씀이 ‘달고 오묘’ 해서 аж서 읽을 정도였다. 3학년인 지금은 학생회 일원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체험해 가고 있다.

처음 대학 문화를 접하는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술, 담배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며, 많은 신앙의 고인들로 힘들어 한다. 그러나, 이런 대학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사회에 나가 겪어야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복음으로 무장하여 준비를 하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강한 힘에 그냥 휩쓸려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산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꿈을 꾸야 한다.

“나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까웠기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나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 같은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이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토요일 대학부 집회에 꼭 참석하여 함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길 소원한다. 친구, 구역, 토요일 대학부 집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란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딤후 2:22).

나를 참된 교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유 병 규 (대학부 교사)

대학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참 많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모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얼마 전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적이 있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여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무뎠던 모습으로 살았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너무 더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숨긴 채 그들 앞에 서면 아이들은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생님 말씀이 안 좋아 보여요.”라며 걱정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일까?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격지 않은 당황함을 느꼈다. 결국 그들 앞에서 내 약한함을 내 놓았고, 기도를 부탁했다. 주중에도 연락해서 위로와 힘을 주고 중보해주던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고난 주간 새벽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했다.

전에 어느 교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가 참된 교사인지 아닌지 학생들은 안다. 교사 말씀은 준비하고 전하는지 아닌지를 학생들은 알고 있다.” 그렇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기도 없이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주는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진정된 목자로부터 말씀을 얻는 것인지, 샅근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전 단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영적 나태함으로 인하여 참된 교사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것을 아이들을 통해 깨닫게 하고 늘 깨어 민감하게 준비하도록 도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들이 아닐 수 없다.

보혜사 성령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장성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장성해가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의 장성은 자기의 도덕적인 완성이라든지 인격적인 성숙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신자의 장성은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의 모든 가치와 정성을 버림과 동시에 주님께 자기를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는 실재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수양하는 의미로, 혹은 좀더 지적인 것이냐 좀더 앞선 어떤 것을 얻어 보려고 자기 기억에 대한 고려가 앞선다면 그것은 골리앗교이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셨다면 다 죽어있는 상태였던 것을 믿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믿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라 절대로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돌아설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을 알게 하시 뿐 아니라 신자로써 해야 할 모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죄인의 습성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훨씬 광범위하게, 훨씬 미묘한 때까지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靈)으로 하시니까 사람의 속에게까지 다 미쳐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그러하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7-8)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단지 인격을 성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성령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기를 전부 드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뿐 아니라 본래의 가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기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매 순간 성령에 의지하지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신자의 생활에서 깨닫고 나아가야 할 도리입니다. 만약 회회를 오면서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단지 인격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성신의 가르침과 기도하심’을 읽고·편집실 제공)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구 세 훈 (대학부)

내가 처음 중현교회에 온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동네의 작은 교회에 다니던 나는 중현교회로 온 후 꽤 적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이 분반공부를 하던 친구들과 친해지고 조금씩 중현교회에 적응해 갈 무렵 선생님 분이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 성극 같이 안 해볼래? 웬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싶다는 생각에 나는 “예”라고 대답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난 성극을 하고 있다.

성극은 무대에서 ‘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는 성극을 하면서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비전을 찾았다. 그 달란트는 성고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작년 불가리아에 단기선교를 가면서 준비했던 마임 ‘헬즈’는,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에 서서 공연을 하는 우리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연극이라고 하면 극장이나 무대를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불가리아에 단기선교를 갔을 때, 우리는 길이나 들녘뿐만 아니라 어느 집의 방안에서도 공연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장소가 상관없는 것처럼 성극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곳이 무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연줄자를 만난 행운을 가진 배우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연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마틴 루터의 종사의 십자가



4.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십자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리고 긍휼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십자가를 바라보노라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철저히 벌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야만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벌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으로써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지키시고, 동시에 그 아들 안에서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 넷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예고하셨고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셨으니, 십자가아말로 하나님의 불변성의 뚜렷한 증거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죄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된 사랑(롬 5:8)이 아닌가!

당신은 십자가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발견했는가? 당신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무궁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보고 있는가? 그리하여 십자가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곧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는가? 만일 당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반대로, 만일 당신이 이런 것들에 관하여 무지하며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며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라도 겸손히 성령께 간구하자.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눈을 열어 주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하시도록 간절히 구하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편집)

♫ 다음 주일 찬송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이 찬송은 루이제 라이하르트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찬송곡명을 택해서 작곡하였고,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 1877년 10월 역대상 12장 18절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하였다. 역대상 12장 13절부터 보낸 다윗과 사울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돌아온 아히에셀 일당과 갓 사람 중에서 애셀 일당, 그리고 30인의 두목 아바새가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 도왔던 기사가 있는데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 이것을 읽고 과연 왕의 편(그리스도의 편)에서 적(사단)과 싸움 자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이것을 썼다. 또한 이 찬송 속의 싸움은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전쟁인데 그 군사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감해야 한다.

1절: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누를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리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2절: 세상 열방 위해 따를 아나도 크신 사람 인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 원한 품바 많고 원수 갚아나 주의 용사 더욱 강히 가리니

누가 능히 이겨 내라 도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 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 찬송의 대의(大意)가 "악과 싸움에서 우리는 주의 편에 서서 확실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므로 군인답게 씩씩하고 힘있게 불러야 한다. 승리한 용사처럼...

(전원위원회)

장학호실

6교구 잠실2구역 이예자 권사의 동생 이영숙 성도

이영숙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집안으로 시집가서, 언니 이예자 권사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주님을 멀리하고 살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전신을 못쓰게 됐었습니다. 쓰러진 상태에서 몸파일이 이예자 권사로부터 계속 복음을 들었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이영숙 성도는 장애가 되도 좋으니 살려만 주면 주의 중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고, 지금은 몸이 조금 회복되어 걷기와 작은 활동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과 약속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학생 인터뷰 7

1. 천국실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항상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2. 천국실공으로서 하고 있는 일은?

올해부터 중등1부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중등1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어린양 같이 순수하고 맑게 성장했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혹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귀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3. 천국실공으로서 부족한 점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 버리셨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 그리스도도와 어떤 관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며 친구입니다.

참세 전투터 저를 택하시 귀하신 계획 안에서 창조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제가 힘들고 슬플 때 위로해주시고

고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인선 (중등1부 반주)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하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37	윤원정	1	장년1부 박승진(8)	549	홍영민	8	장년2부 황옥영(8)	561	이원정	19	장년1부 문효직(4)
538	임다빛	1	장년1부 박미순(4)	550	윤창호	8	장년1부 이종철(8)	562	장영주	19	장년1부 권진(17)
539	황영준	1	장년1부 박미순(4)	551	신동욱	9	장년1부 김병수(3)	563	김소연	19	대학부 이정훈(8)
540	임우희	1	대학부 박미순(4)	552	김현국	10	장년2부 김현국(10)	564	오진익	19	장년1부 이준하(1)
541	임우현	1	고등부 박미순(4)	553	송은진	13	장년1부 조혜준(2)	565	박지혜	19	대학부 김병미(9)
542	황현진	1	장년2부 이진광(5)	554	장진준	14	장년2부 신혜영(2)	566	박혜영	19	장년1부
543	김지숙	1	장년3부 정민선(9)	555	권민연	14	장년3부 권용배(8)	567	김현주	19	대학부 손기현(8)
544	이성일	1	대학부 이남궁(4)	556	조은지	14	장년2부 정금순(13)	568	나지희	19	대학부 안은숙(19)
545	정영일	1	장년2부 박광(11)	557	정원주	14	장년2부 정금순(13)	569	오창욱	19	고등부 박민서(8)
546	조남익	6	장년1부 김근재(4)	558	김문자	14	장년2부 조은수(16)	570	이기영	19	고등부 정경희(16)
547	김정란	7	장년1부 송태자(5)	559	양은하	16	장년2부 배만수(5)	571	임정희	1	장년1부 김영옥(4)
548	주동현	8	장년2부 황옥영(8)	560	박재영	19	대학부 김경숙(10)	572	최혜재	2	장년2부 강태영(12)

※ 출석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Remember Your Creator While Young

저는 현재 중등 2부에서 운영, 다솔, 찬영, 수호, 서인, 군별 이렇게 6명의 친구들과 사랑 4번이라는 한 배를 타고 항해 중인 문화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나침반에 의존하여 믿음 공부도 하고 각자의 삶을 나눈 지도 벌써 다섯 달이 되어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사로 봉사하면서 내가 과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떨리기도 했고,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성경공부 시간에는 더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려고 하였고, 최대한 반 친구들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 수업과 과제로 바빠지고 성경공부가 익숙해지자 저의 신앙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평일에만 아이들과 자주 연락하지도 못했고, 그동안 성경 말씀에 대해 가졌던 확고한 믿음이 오래저 마음에서 답답함과 해탈되지 않는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저런 책을 들춰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기도 했지만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니다. 주일에만 친구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미안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반 친구들 6명 모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고백을 통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나 자신의 신앙을 갖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Remember your creator while young*(나는 청년의 때 곧 고난의 날이 임하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기쁨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1) 라는 성경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믿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은 나의 영원한 의무’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등 2부 모든 친구들이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문화원 (중등2부 교사)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 희 정 (중등1부 교사)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그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 온 지 십 수 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다. 때론 힘든 봉사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마당의 뜰만 밟는 자, 회개하라. 자손임을 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을 울려 왔다. 그동안의 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수솔하기 시작하셨다. 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었다. 게다가 난 이기적이고 불성실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다. 분명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많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의 내면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다. 나의 죄악을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비참했다. 분노와 수치, 좌절, 자포자기. 끝도 없는 나에 소문들, 소문에 갇혀 고통되어 가는 나의 영혼. 그러나 충현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간섭은 끝이 없었고, 결국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처럼 지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주었다. 나 때문에 마음 고생했을 내 주변분들에게 정말 죄송해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은 벌거벗기위 수 치와 조롱 앞에 무기력히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난 조롱과 수치를 받아 죄를 느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고난은 반갑지 않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

이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내게 맡겨 주신 일들을 성실히 일하기를 소원해 본다.

진리의 샘

에베소서(Ephes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에베소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2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직전에 잠깐 머물렀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행 18:19~21),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니다(행 18:24~25a). 그런데 그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고(행 18:25b) ‘브리글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행 18:26). 이것은 평신도도 평신도를 가르쳐서 제자삼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볼로는 아가아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유대인들과의 논의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행 18:28).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 대해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행 19:6).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루르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행 20:31). 비록 ‘데메트리오’라는 은상제이 일으킨 ‘성의 소동’으로 인하여 에베소를 떠나게 되지만(행 20:1),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다스리도록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의 도를 수호할 것을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장성한 교회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행 20:31).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유로 디모데를 남겨놓기까지 한 것입니다(딤후 1:3).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연행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에는 먼저 사도행전 19장~20장을 읽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1절~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매우 유익한 시각을 가지게 해 줄 것입니다.

김동하 목사(천주교목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사

김 성 은 (중등3부 교사)

먼저 부족한 저를 주일 학교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중등 3부는 제가 충현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곳입니다. 십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어른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일 학교 교사로서 저를 다시 중등 3부로 불러 주셨습니다. 처음 하는 교사의 직분임이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주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침을 고백합니다. 4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엔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느낍니다. 처음엔 주일학교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생각에 뿌듯해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부여하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좋으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병들어 친구들과의 전도에도 힘쓰는 아이, 찬양하는 것이 즐겁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동일한 은혜를 누렸고, 지금껏 겁을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기에 한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권사 2지희 월례회
일시: 14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결혼

1. 김진성 군(강철형 장로, 왕인숙 권사의 아들, 17교 구)과 최수정 양(최병재 성도, 백영숙 집사의 딸, 호성교회) / 13일(화) 12:30 갈릴릴
2. 정중학 군(경기성 집사, 이운자 권사의 아들, 12교 구)과 정지영 양(정근부 성도, 이상철 성도의 딸, 구의교회) / 15일(목) 13:00 갈릴릴
3. 배진호 군(배정호 집사, 이규숙 권사의 아들, 12교 구)과 최영민 양(최동운 씨, 한옥자 씨의 딸) / 17일(토) 11:30 강남구 청담동 탑재영 1층 (S12-0100)
4. 박근호 군(박원현 장로, 이옥자 권사의 아들, 성서교회)과 노경화 양(노봉기 성도, 정영숙 집사의 딸, 11교 구) / 17일(토) 14:00 성서교회

* 김성관 위임목사는 안식년으로 휴가중입니다.

별세

1. 김경옥 타교집사
이회국 집사의 장모, 김인숙 집사의 모친, 17교구 수제 1구역/4월 23일 별세, 4월 25일 장례
2. 지현구 타교성도
저용옥 성도의 부친, 이혜란 성도의 지부, 14교구 신도임구/4월 30일 별세, 5월 2일 장례
3. 원봉숙 타교권사
정무용 타교장로의 부인, 유병호 성도의 장모, 정은자 집사의 모친, 17교구 대송구역/5월 4일 별세, 5월 5일 장례

◆ 미용 봉사자 교육생 모집

미용전도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 자 격: 45세~55세의 세례교인으로
미용봉사에 헌신 하실 분
2. 연 락: 총무 유현순 016-9590-2247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동산 산역관리인 (숙식제공)
미화직, 경비직
세례교인
2. 자격: 자립 이력
주인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교회장)
3.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현교회

충현기도의향

-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시어 주사시.
-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진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3) 성도의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 하소서.
- 4) 충현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고,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기를 하소서.
- 6) 교구별 태산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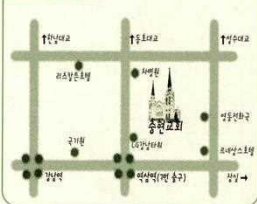
이번주 새끼기도회 담당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종철/김영달	김영훈/허 오	여극근/이인광	김교성/김영록	서광진/최정남	이유진/김정자	장 훈/이수경

예배 담당안내 (5/14-5/18)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회	기도	설교
5/14	수요 I		여성기	한정희	건리 안에서의 자유(요 8:31-38) 안창덕 목사
5/14	수요 II		장 훈	김영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요 4:7-13) 이희석 목사
5/16	금요집회	특별찬양(버리온 이상민/브나혜 여성중앙단/유지부 찬양대)	이종대		김동하 목사
5/18	주일 I		위건환	박철규	고난을 통한 승중(마 5:4-10) 김창훈 목사
5/18	주일 II	고생과 수고보다 지난 후의 열매(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고광환	이창호	그리스도의 승중(마 25:1-11) 나광영 목사
5/18	주일 III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외(소프라노 이하나(말렘부)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종철	이계인	고난을 통한 승중(마 5:4-10) 정현민 목사
5/18	주일 IV	아 네 날 품 속을 헤메며 외(소프라노 윤지영(아래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성록	김종훈	그리스도의 승중(마 26:1-11) 김교성 목사
5/18	주일 V	사월에 봄바람 불어 있고 외(벌레 오케스트라(지도: 장정희))	유병희	조종환	고난을 통한 승중(마 5:4-10) 정현민 목사
5/18	주일찬양		정진호	전계식	생존하시는 하나님(산 42:2) 김동하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보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김은호 노경현 오진국 이병학
신로교회 17교구 왕복사기 역곡교회 2교구
최대원 임필석 강모용 이 훈 남순우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정운석 김영길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김진세 이창호 차진석 김창남 이종석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기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전홍욱 전홍렬 이경우 김단웅 황영일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한송규 김영수 김환기 원훈철 이형수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안동현 황의만 김구현 최원재 이계인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박덕양 이대식 정태두 박종구 권명옥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전종환 배순식 김영달 이철호 박찬섭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최시윤 노영한 박철규 정정식 신상수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여성기 유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극근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김교성 이윤희 안창덕 방종철 나광영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정진호 김용덕 이성록 고광환 김창훈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위건환 김익찬 김성수 장 훈 윤원덕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이희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정종신 양재웅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 전도목사 이정철

■ 면전도사

- 정현민 신동주 윤인숙 한영준 김연석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김정현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조옥자 강덕원 김경진 강재구 최문섭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전은희 김성수 김경자 이수경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신로교회 17교구

- 전담강도 강인규 ■ 전담지휘자 서순성
■ 전담목장지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원 (신로교회)
■ 협력사자 하효성 (이동교회)

예배 및 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찬양대	오후 3:00	본 당
	(평론이 가 드리는 예배)	
	오후 5:00	본 당
찬양대	오후 5:00	본 당
주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끼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회 안내

기도회	시 간	장 소
회교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집회	오후 11:00	금요집회
		본당 앞 주차장

*목요일 10:00 / 월, 목, 목 오후 7:00에
동문회설립 50주년 기념기도회 진행함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구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II 오전 10:50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 지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소 랑 부	오후 12:15	강 리 리 홀
	II 오전 10:50			오후 12:15	강 리 리 홀
유 년 부	오후 10:30	교육관 307호	신로가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10:30	교육관 407호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소 년 부	오후 10:30	교육관 507호	악 아 부	오후 9:00(약 50명)	교육관 207호
	오후 9:00	교육관 501호		오후 9:00(약 50명)	교육관 102호
중 등 1부	오후 9:00	교육관 507호	제2교육관	오후 9:30	강 리 리 홀, 배다나홀
	오후 9:00	교육관 401호		오후 9:30	강 리 리 홀, 배다나홀
중 등 2부	오후 9:00	교육관 501호	제2교육관	오후 9:30	강 리 리 홀, 배다나홀
	오후 9:30	제2교육관 4층		오후 9:30	강 리 리 홀, 배다나홀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제2교육관	오후 11:00	아 멘 홀
	오후 11:00	제2교육관 4층		오후 6:10	강 리 리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신로교회,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